

차당선인 “나주 화탑마을 농촌발전 모범사례”

농촌+관광, 소득 높이고 유통구조 개선 농업 경영모델 개발해 확산시켜 나가야

인수위 경제분과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농촌 발전의 모범 사례로 나주시 세지면 송재리 화탑마을을 언급, 화제가 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중소기업·수출·농업 등 실물경제를 다루는 인수위 경제2분과와 토론회에서 농업과 관련 “소득과 관련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1차산업이 아니라 가공·유통·관광 이런 종합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서두를 꺼냈다.

박 당선인은 이어 “농림축산부” 이렇게 하나가 거기에 왜 식품이 빠져느냐고-식품이 붙어오면 된다”라고 말한 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너무나 너

무나 당연한 일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농업이 1차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당연히 식품 정도가 아니라 관광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발전시켜야, 2차, 3차 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농림축산부’라고 했었는데...”라고 정부 조직 개편 때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화시킨 뒤 얘기를 들려주면서 농업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박 당선인은 “제가 작년엔 전남 나주의 한 농촌마을을 방문했다”라고 소개한 뒤 “그곳에서 농촌과 관광을 결합해서 주민소득도 높이고 또 농산물 유통·판매구조까지 잘 마련이 돼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잘 살아가갈 수 있나 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나아가 “그래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와 같은 개별 농가의 지역 조직의 농업경영모델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의 분과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개발하고 또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당선인이 언급한 나주의 성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한 지자체들의 사업모델도 연구를 해서 지자체의 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

부의 지원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제외한 4개 구청장이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안을 찬성 입찰을 받고 있다.

MB 내일 특별사면...신-구 권력 ‘긴장감’

법무부 심의 마무리...국무회의 상정 인수위 “반대”...정권 인수인계 불똥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임기 말 특별 사면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신·구 권력간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 특사안은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면서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다른 고위 관계자도 “특사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날 이 대통령의 특사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가 처음으로 내놓은 이 같은 특별사면에 대한 공식 입장에는 박근혜

역대 대규모 특별사면 현황



1995년 김영삼 정부 700명, 1998년 김대중 정부 552명, 2002년 노무현 정부 480명, 2005년 이명박 정부 422명, 2008년 기중 이명박 정부 283명

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특사 대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 의원과 서정원 전 의원의 이름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예상대로 설 특사를 단행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꼭 4주거량 남은 정권 인수인계로 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한편,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명절앞 불법 선거운동 선관위, 예방활동 강화

광주시·전남도 선관위는 설·대보름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 예정자 등의 위반 행위 발생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설·대보름을 전후해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 등을 통해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법위반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

시의회,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미뤄 자치구 자금난 예고...4개 구청장 “조속 처리를”

광주시의회가 지난 25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역 5개 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제외한 4명의 구청장들은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심의보류했던 ‘광주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행정위는 보통세의 22.8%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안을 시로부터 지난해 9월 제출받은 뒤 “보통세 교부율을 23.8%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며 조례안 처리를 한차례 유보했다. 행정위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어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인 이번 회기 내에 조례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제외한 4개 구청장이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행정위의 조례안 처리 유보 또는 반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일부 시의원이 시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조례안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장 협의회에서 송광운 북구청장은 “재원조정교부금이 1분기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자금 압박을 받게 된다”며 “시가 재원조정교부금 외에 자치구에 100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한만큼 의회에서 조속히 조례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회용 동구청장은 “시가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보통세 교부율을 22.8%로 정해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빨리 처리해도 무방하다”며 “매년 보통세 교부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식 서구청장은 “자치구로서는 보통세 교부율을 25%로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강운대 시장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조례안을 빨리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자치구 재정이 어려워 인건비도 주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가 별도의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조례안 처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줄이면 재정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조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

“수치여사 한국 방문 환영”

미안마 이주민 300여명 휴가 신청하며 학수고대

국내에 거주하는 미안마 이주민들이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첫 방문을 앞두고 기쁨과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수치 여사가 대표로 있는 ‘버마(미얀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의 내똥나임 대표는 25일 “수치 여사의 첫 방문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동안 수치 여사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수치 여사 방문은 약 500명에 이르는 미안마 난민들과 유학생이나 결혼이주민 등 여러 계층의 이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거주 미안마인들은 특히 다음달 1일 오전 9시40분부터 1시간가량

김대중도서관에서 진행될 수치 여사와의 만남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내똥나임 대표는 “1일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약 200명에서 300명가량의 미안마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회사가 특별휴가를 신청하거나 일요일 대체근무를 신청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난민으로 살면서 20년 가까이 모국에 가지 못한 이주민방송(MWTV) 대표 아웅틴톤(38) 씨는 “한국에 대성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 등 약 500명가량의 난민이 하루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수치 여사는 2013 평창 스페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초청으로 28일 오후 방한한다. 30~31일에는 광주를 방문해 제5회 광주인권상(2004년)을 받고 9년만에 수상 소감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이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지구정원) 광주 서구 동성동 64-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 검색

**누구나 갖고 싶은 땅을
눈여겨 보십시오!**

I. 나주혁신도시-상업용지

- 메인도로3면코너 1080㎡ 매매가 24억5천만원
- 호수공원테라스거리 705㎡ 매매가 14억9천만원
- 호수공원내3면코너 1288㎡ 매매가27억3천만원
- 메인도로코너 1056㎡ 매매가 23억9천만원

II. 나주혁신도시-근린생활용지

- 배후아파트상권 640㎡ 매매가 11억6천4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610㎡ 매매가 11억6천5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720㎡ 매매가 12억원

III. 남평강변도시- 상업용지및근린생활용지

- 핵심상권코너 529㎡ 매매가 5억4천
- 핵심상권코너 449㎡ 매매가 4억원
- 핵심상권코너 416㎡ 매매가 4억1천만원
- 핵심상권코너 448㎡ 매매가 5억8천6백만원

나주혁신도시,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번지

목욕탕 매매

15,000세대
독점 상업용으로
실수요자 최적!

- 대 지: 750평
- 건 물: 1350평
- 용 자: 20억~25억 (감정가 58억원)
- 매매가: 40억원
- 실 준비금 15억~20억원 까지

① 주월동 풍암지구 입구 대로번 코너 상가 대지89평, 건평 292평 매가 6억3천
② 광산구 운수동 자연복지 도로 접 전1,382평 매가 8억5천(공장, 창고, 기둥 등 직합)
③ 세하동 서광주역 뒤 자연복지 (그린벨트) 도로 접 임전1,957평 매가 5억3천(투자최적)

행운공인중개사
011-642-7777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내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본점, 대인동 상일부동산